



| 한·미 FTA 관련 토론행사 개최현장 ① |

‘한·미 FTA 체결이 국내 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피해최소화를 위한 선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공감 -

지난 2월 1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는 정부, 농축산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체결이 국내 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농수축산신문사 주최, 우리협회 등 후원)이 개최되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외교통상부 홍지인 심의관은 한·미 FTA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는 필연적 과제라 밝히고 거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로 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로 통상마찰을 줄이고 서비스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농경연 권오복 FTA팀장은 미국의 막강한 농산물 수출규모와 이에 따른 한·미 FTA 농업 부문 영향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생산감소액(축산물은 3,380억원~9,031억원, 낙농제품이 142억원~1,110억원)과 농산물 수입증가도(축산물 91~215%, 낙농제품 157~527%)와 고용감소치(축산업 19,569~52,280명) 등에 대해 밝히고, 어차피 FTA가 국익극대화란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우리 농업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협회장은 어떤 FTA 협상이든 그 개시 이전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논의, 국회의 검증,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무시된 채 줄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 FTA 추진은 관련산업과 경제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특히 낙농산업은 UR협상 이후 유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원유수급불균형 현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 중장기적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진다면 산업에 극심한 혼란가중이 야기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업의 수준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해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라 밝히고 한미 FTA란 위기를 기회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자고 하였다.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도 한·미 FTA 농업 부문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지속적 시장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히고, 앞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한 협상 기본원칙하에 품목별 민감도에 따른 협상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품목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은 말은 이정환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現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협상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품목별로 세세한 접근을 통한 피해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외교통상부, 농림부에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기본으로 한 협상진행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이날의 심포지엄을 마쳤다.